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강태분 교사(40년 장기 근속)

박인수 교사(40년 장기 근속)

임소영 교사(35년 장기 근속)

전주현 교사(35년 장기 근속)

유재란 교사(30년 장기 근속)

교회학교 위원장과 교사들

2025년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 임명예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다

지난 2월 2일(주일) 저녁예배 시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5년 교회학교 <교사 임명예배>를 드렸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본당, 지교회)에는 영아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교육위원회가 있다. 이번 교사 임명예배에서는 각 교육위원장과 부장, 총무를 비롯해 총 423명의 교사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두려움을 뛰어넘어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사들이다.

이종현 장로(초등교육 위원장)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교사들은 영상 인터뷰를 통해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러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말에 교사들 모두 공감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함께한 특송에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양으로 신앙고백을 했다.

정성민 목사(교회학교)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부르심'(수 1: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뛰어넘는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라고 말했다.

근속 교사 시상에서는 5년 근속 12명, 10년 근속 9명, 15년 근속 7명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근속 기념 주화를, 20년 근속 11명, 25년 근속 6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근속패를 수여했다.
30년 근속 1명, 35년 근속 2명, 40년 근속 2명 교사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근속패와 꽃다발이 수여되었다.
또 32명의 모범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수여했다.

이어서 모든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 헌신 서약식에서 "바른 예배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교회학교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매주 철저하게 심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권면의 말씀을 통해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됩니다. 선서문에서 '교회학교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철저하게 심방하겠다'는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40년 동안 근속하신 강태분, 박인수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자신의 성실함과 열정에 더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참석한 교사들은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에 헌신할 것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길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했다.

···› 3면에 계속

2 광림의 강단 생명의 주인과 함께 걸어가라
3 광림 스토리 2025년 신년 예배 및 임명식
4 하나님을 만나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설 잔치
5 다음세대 청년부 노숙인 사역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 성경 이야기

생명의 주인과 함께 걸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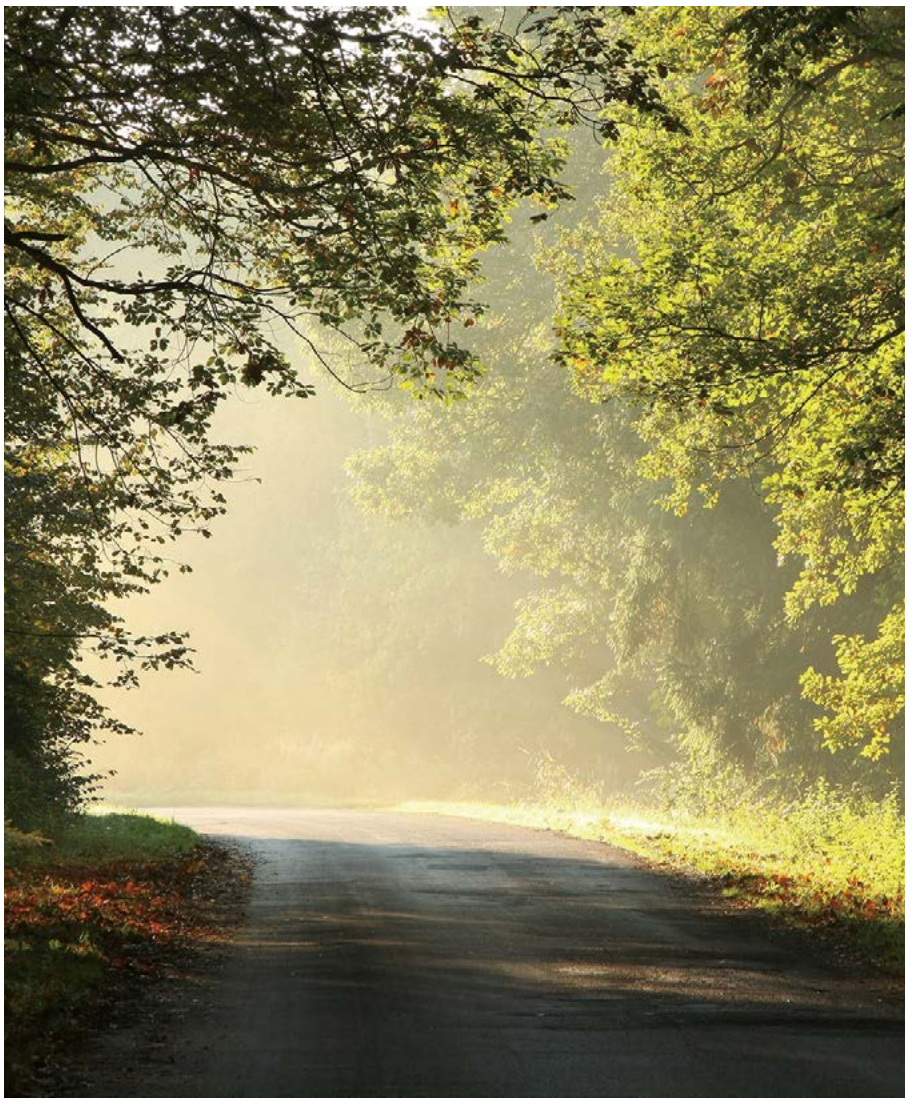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눅 7:14)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도 생명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기사가 세 번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예수님의 친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유한성과 더불어 한계를 넘어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마치 병자를 고치시듯이 "청년이여 일어나라"고 외치시니 죽었던 청년이 관을 열고 나온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 참으로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주저 앉고 싶을 정도의 힘이 든 인생의 여정,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도전과 용기를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11~17

11.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첫째,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기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하여 그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나인 성문 앞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함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과 생명의 행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문 안 쪽에서는 하나의 슬픔의 행렬이 나오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마주한 두 행렬,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기쁨의 행렬이지만 다른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요 절망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의 만남, 결과는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렸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남았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만나면서 빛만 남았습니다.

예수 만남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과 슬픔은 물러가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생각하며 한탄과 비판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과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던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용기가 납니다. 이 만남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와 슬픔의 마음을 몰아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넘쳐나게 합니다.

올 한 해에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게 될 때 어두움이 변하여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참된 생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아와 자신의 문제를 고하고, 고쳐주기를 간청하지만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 아무런 요청이나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인성 과부조차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 장사 지내러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도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불완전한 모습,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는 얄팍한 믿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절망과 어두움을 아시는 예수님,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의 장례 풍습과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은 비슷합니다. 망자가 가는 길은 그 길을 가고 있던 사람도 일부러 그 길을 비켜줍니다. 그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렬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여가 멈춥니다. 이어서 아무런 대화 없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에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하실 때 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산 자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곧 능력과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해결자요,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높이고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십시오.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것의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2025년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 임명자 명단

〈교육위원장〉

영아 : 김숙남 권사 유아 : 백경자 장로
유치 : 조수진 장로 어와나 : 박정원 장로
유년 : 홍석진 권사 초등 : 이종현 장로
소년 : 김진섭 장로 중등 : 박철우 장로
고등 : 고희동 장로 영어예배 : 박남규 장로
광림남교회 : 윤선옥 권사

〈장기 근속 교사〉

○ 40년 장기 근속 교사 :
박인수(유년2부) 강태분(고등1부)

○ 35년 장기 근속 교사 :
임소영(어와나) 전주현(고등2부)

○ 30년 장기 근속 교사 : 유재란(유치2부)

○ 25년 장기 근속 교사 :
홍은경(유년1부) 김희정(유년1부)
강주희(유년2부) 이봉규(중등1부)
이현일(중등1부) 김효민(중등2부)

○ 20년 장기 근속 교사 : 남원미 김민음 선양현 박용균 김유미 김주연 박나윤 염대형 고혜영 이현주 문지현

○ 15년 장기 근속 교사 :
장정숙 백수연 신수연 김찬우 이은희 박은영 어경숙

○ 10년 장기 근속 교사 :
박상철 박혜진 이혜영 정안진 이윤경 이혜린 박한나 김태연 윤은희

○ 5년 장기 근속 교사 :
김소희 박병진 맹경재 강효진 김환희 김영찬 이승주 이민정 정요셉 서은미 강정은 한주영

〈모범교사〉

○ 본당 모범교사
영아1부 : 정미옥 영아2부 : 장연익
유아1부 : 홍승우 유아2부 : 이가원
유치1부 : 남원미 유치2부 : 정우석
미취학 어와나 : 이예은
유년1부 : 박정윤 유년2부 : 이경민
초등1부 : 최유리 초등2부 : 정혜민
소년1부 : 윤지호 소년2부 : 곽주현
영어예배부 : 강우진 어와나 : 유한나
중등1부 : 염혜진 중등2부 : 윤지민
고등1부 : 최지인 고등2부 : 김호수

○ 광림남교회 모범교사
유아부 : 김주영 유치부 : 김명인
유년부 : 최승호 초등부 : 고서연
영어예배부 : 심진경 중등부 : 이예의
고등부 : 서은미 어와나 : 어경숙

○ 광림북교회 모범교사
유아유치부 : 최원락 아동부 : 이난희

○ 동탄광림교회 모범교사
유아유치부 : 오현미 아동부 : 장한나
중고등부 : 김민정

이정순 기자

2025년 신년 예배 및 임명식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헌신을 다짐

광림교회 남·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와 각 위원회는 1월 25일(토), 본당 대예배실에서 신년 하례 예배와 임명식을 가졌다.
트리니티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이화열 권사(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의 사회와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의 기도로 드려졌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향해 '사랑받는 형제'(골 4:7~9)라고 한 것처럼 오늘 임명받는 임원들은 "사랑받는 형제요, 믿음을 전하는 임원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에 신실한 일꾼으로, 주 안에서 함께 종 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축복했고, 임원들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길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했다.

2부 임명식에서는 조성한 목사의 사회로 28명의 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식이 있었다. 남·여선교회는 본부 임원, 선교구 연합회장, 교구회장, 개체선교회장과, 실업인선교회는 임원과 분과위원장들이 김정석 감독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진 3부 신년 음악회는 김은정 집사(갈릴리성가대)의 사회로 성가대 솔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남·여 독창(Bar.강동진, Sop.한경성), 남성 중창, 여성 중창, 전자바이올린(손수경), 남녀 혼성합창 등의 연주가 있었다. 다양한 곡목의 아름다운 찬양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신년 예배 및 임명식에 참석한 임원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한편 김정석 감독회장은 진천의 한 교회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그곳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마련한 대추고 백설기 떡을 구입해 임원들과 나누며 애찬을 함께 했다.

이상희 기자

포토 뉴스

여선교회총연합회 2월 월례회
2월 2일(주일)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청년선교국 해외선교 후원 모집
2월 18일~25일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다.

성경 통독 묵상 온타임
온타임은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감독회장 동정

1/27~31	탄자니아 아프리카연합대학교 채플
	아프리카 CTS센터 방문
2/2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설 잔치
	교사 임명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설 잔치

2월 2일, 사회봉사관에서 하나님 사랑과 축복 속에 은혜로운 행사 진행

광림교회 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주일)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4개 언어권별 선교회와 그들이 초청한 국내 거주 외국인 등 120여 명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하는 설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불어권, 에티오피아, 중국어권, 러시아권 선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했고 영적인 부분을 강조해 더욱 은혜로웠다.

4개 언어권 선교회가 공동으로 찬양팀을 만들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등을 같이 찬양했고 성도들은 흥겹게 따라 부르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했다. 설 잔치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명절 음식을 즐기고, 각 선교권에서 자국의 고유 음식을 손수 만들어 와서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즐겼다.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한국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선교회원들을 위로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고향을 떠나 일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길 축복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쁜 한복을 입은 외국인 어린이들이 드리는 세배를 기쁘게 받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설날의 감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축하 공연에서 강주호 집사(갈릴리성가대)는 은혜로운 성가로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선교회별로 기도 제목도 나누었다. 콩고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내전의 종식을 위해, 국내 러시아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중국어 선교회의 말씀 사모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지원하고 있는 교회와 현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성경 말씀 암송과 성경 퀴즈를 풀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중국어권 윤복금 집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두 암송해 대상을 받았고,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능숙하게 외워 인기상을 받았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어가는 불어권 선교회 보메메 솜베야넉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여러 언어로 합동 찬양팀을 지휘하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다음에는 꼭 성경 암송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서명관 장로(국내선교위원장)는 "행사를 위해 수고한 외국인제자센터 봉사자들과 남·여·실업인선교회 등 기관과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는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어 등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의 참여와 봉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소현수 기자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마커스워십 소진영 찬양사 간증 집회

지난 1월 24일, 7선교구 주관으로 진행된 금요 은혜의 밤에는 마커스워십 예배 인도자이자 찬양사인 소진영 간사를 초청해 특별한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소진영 찬양사는 다수의 앨범을 발표한 작곡, 작사가로 자신의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으로 간증을 시작했다.

4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정에서 자란 소진영 간사는 25살, 추석 명절 전 갑자기 찾아온 오한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매일 4알의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친오빠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이식을 받으면 평생 불임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식을 포기하고 항암제를 계속 복용하기로 결심했다.

마커스워십으로 사역을 하던 중, 투병 5년 만에 결혼하게 된 소 간사는 아기를 갖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약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울며, 한 번만 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 바랐기에 평범한 삶을 주시지 않으셨나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1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 기적처럼 임신하게 됐고, 그 후 지은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이다. 소 간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이 작은 일에 내가 울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왼쪽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한 달 후 재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진영 간사는 "지난 10년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고통스러웠어요"라며, 수유를 하면서도 늘 울며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딸은 다행히 정상 판정을 받았다. 소 간사는 어느날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니? 네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네가 아니고 나란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어, 이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흔들리던 자신을 돌아보며 만든 곡 '예수, 늘 함께하시네'를 성도들과 함께 부른 후 소진영 간사는 현재 4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히 지내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늘 함께하시네'와 같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소진영 간사는 딸이 3년간 샤이닝키즈에 다녔음을 언급하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유치원을 다니게 해준 광림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꽃들도'라는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부르며 은혜 가득한 간증 집회를 마쳤다.

박희윤 기자

청년부

노숙인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발걸음 이어가다

청년부와 '거리의 천사들' 선교 단체와 협력해 하나님의 위로 전해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밤, LFC 청년선교국은 '거리의 천사들' 선교 단체와 협력하여 노숙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은 늦은 밤, 거리에서 잠든 이들을 위해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간식과 손편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노숙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작은 손길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스며드는 귀한 순간이 되고 있다.

따뜻한 간식과 손 편지에 담긴 사랑

이 사역을 위해 청년들은 밤 9시에 한자리에 모여 정성을 다해 준비를 시작한다. 준비된 간식 바구니에는 든든한 간식이 담기고, 함께 전할 손 편지에는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가 적힌다. 편지에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와 같은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으며, 자립을 돕기 위한 센터의 연락처도 함께 포함된다.

때로는 한 줄의 메시지가 삶을 포기하려던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기에, 청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다.

준비를 마친 후, 청년들은 밤 11시가 넘어 서울역과 남대문 등 노숙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깊은 밤, 잠들어 있는 노숙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간식과 편지를 머리맡에 두고,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외롭게 잠든 이들을 바라보며 청년들은 더욱 간절히 손을 모은다.

기도와 사랑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

이 사역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숙인 선교팀의 유종현 팀장은 "노숙인들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역의 깊은 의미를 강조했다. 함께 사역하는 청년들 역시 같은 마음이다.

방승언 청년은 "노숙인들 앞에서 직접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전했다.

청년들의 손길과 기도가 노숙인들의 차가운 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한다.

사역의 지속성과 헌신의 다짐

LFC 청년선교국은 앞으로도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 노숙인 선교 사역을 지속할 예정이다.

노숙인 선교팀은 예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 깊이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있다.

청년들이 늦은 밤까지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 사랑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노숙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의 손길은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황시언 전도사(청년부)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Dream?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인생을 드리는 시간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9)

2025년 광림교회 겨울성경학교가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Dream?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오는 2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2월 8일(토)부터 9일(주일)까지 광림교회에서 유년부(초 1~2학년)와 초등부(초 3~4학년), 2월 14일(금) ~ 16일(주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소년부(초 5~6학년)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하고, 그 꿈을 향해 인생을 드리는 신앙의 여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교회학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목적 없이 남들을 따라가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핵심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요셉' 또는 '꿈'과 관련된 다양한 말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은혜와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활동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됨으로써, 세상의 꿈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가치관을 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학교, 꿈꾸는 자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드리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2025년 광림교회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성민 목사(교육2부)

목회현장

위기 속의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어떤 일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고 나옵니다.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처한 상황이 바로, '위기 속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다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학교의 위기는 곧 미래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림교회 중고등부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림교회 중고등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평소에 학교 앞을 지나다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항상 어둡습니다. 학교와 학원 등 경쟁에 치여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광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표정은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 비결은 동행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매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 공부하고, 함께 모여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동행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QT 모임을 만들어, 점심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느끼며,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광림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다리가 되려거든 혼자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오늘 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개별화된 고립을 선호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다는 나 홀로,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쁨이자 은혜입니다. 어떠한 위기도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중고등부가 날마다 동행의 능력을 경험하며, '위기 속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성민 목사(교육2부)

광림남교회

첫 외국인 설 잔치

광림남교회는 2월 2일(주일) 첫 번째 외국인 설 잔치를 열었다.
외국인 선교 모임의 시작은 작년 4월 총력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의 회사에 미얀마,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전도하면서부터이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돈 벌러 온 노동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셨다. 저들이 우리나라에 머물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였다. 이런 마음과 계획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예배에 초청하였고, 총력전도주일부터 교회에 첫걸음을 하게 되었다.

전도의 열매는 매 주일 예배 참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배 순서와 설교문을 미얀마어와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 최대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고,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매달 한 번씩 사업장에서 외국인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다.

외국인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찬양하고, 한 분은 기타로 반주하며 은혜롭게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설을 맞아 외국인과 기관장, 교역자들이 2월 2일(주일) 2부 예배 전 예수와에 모여, 설 선물을 전하며 티타임을 가졌고 예배 후 애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들은 근거리에 있는 친구들까지 불러와 더욱 풍성한 모임이 되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설 명절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쓸쓸하게 보낼 연휴가 됐을 수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준비한 외국인 설잔치로 인해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로 따뜻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외국인 설 잔치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각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들의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저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악기도 배울 수 있게 하여 교회와 믿음 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38%가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용인을 비롯해 화성, 수원, 안양 등 경기 각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친구들까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하여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고국에도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윤사무엘 목사(광림남교회)

광림도서관, 따뜻한 영적 문화 공간

신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15,000권 이상의 책 소장

2013년 개관한 사회봉사관 5층에는 선한 기독교 문화를 지역 사회에 전파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따뜻한 문화 공간인 광림도서관이 있다.

기독교 신앙 도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약 15,000권 이상의 책들이 섹션 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교인들의 추천과 목회자들의 검증을 거친 신간 도서도 매월 10권 이상 새롭게 비치되고 있다.
신간도서 안내는 도서관과 사회봉사관 2층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림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광림도서관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동절기인 11월~3월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이며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이다. 읽고 있던 책은 대출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대출 기간은 14일이며, 신간 도서는 7일 동안 빌려갈 수 있다. 도서 반납은 운영시간에 직접 반납하거나 도서관 앞 도서 반납함에 넣으면 된다.
광림도서관에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 검색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오픈형 책상과 소파, 1인용 책상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와 공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핸드폰 충전과 와이파이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광림도서관은 총 5명의 자원봉사자들(강현 권사, 박신영 권사, 이재순 권사, 신아영 성도, 한정승 성도)이 도서관 사서로 헌신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광림도서관이란 좋은 문화 시설이 널리 알려져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다.

광림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헌신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도서를 기증하고 싶은 교인은 도서관 운영 시간에 직접 방문하거나 목회선교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시간 :
수, 금,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주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동절기 11월~3월에는 1시간 단축 운영)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3)

유병권 기자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23

홀 가족의 이야기 3 – 셔우드 홀

가슴 깊이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 가족

Sherwood Hall 셔우드 홀
1893 ~ 1991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1893년 11월 10일,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사이에서 태어난 셔우드 홀(Sherwood Hall)은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 이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2세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셔우드 홀이 13세가 되던 1906년, 평양의 남산현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중 하디 선교사(R.A. Hardie)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 의료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사랑하던 가족들과, 특히 어린 시절 남매처럼 함께 지냈던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죽음은 그가 반드시 한국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셔우드 홀은 1910년 미국으로 돌아가 토론토 의과대학(University of Toronto Faculty of Medicine)을 거쳐 의사가 되었고, 1926년 4월, 미국 북감리교의 파송을 받아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셔우드 홀은 해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전문 요양병원인 '구세 요양원'을 설립하였고, 당시 전염성이 강하고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사회로부터 격리 당해야 했던 결핵 환자들에게 치료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1932년, 셔우드 홀은 요양원 운영비 마련과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해 남대문을 그린 크리스마스 실(seal)을 발행하게 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호응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 곳에 편지와 실들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려던 당시 총독부는 '타자로 쓴 편지는 인쇄물이니 우표를 더 붙여야 한다'는 핑계로 크리스마스가 다 지난 후에 발송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셔우드 홀은 낙심하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갖은 탄압에도 셔우드 홀을 막을 수 없자 일본 헌병대는 1940년, 간첩 혐의라는 누명을 씌우고 강제로 한국 땅에서 셔우드 홀을 추방합니다. 한국을 떠나면서도 셔우드 홀은 교인들이 전해 준 태극기를 나뭇가지에 걸고 일가족 5명과 함께 만세를 외치며 떠나갔습니다.

한국을 떠난 셔우드 홀은 인도에서 계속해서 결핵 퇴치에 앞장 섰으며, 1991년 캐나다에서 눈을 감고, 유언에 따라 부모님이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1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현재 양화진 1묘역에는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부부, 그들의 아들 셔우스 홀과 아내 매리언, 딸 이디스와 셔우스 홀의 쌍둥이 딸 필리스와 프랭크 등,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 땅에 전해준 홀 가족 6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거룩한 예배를 위한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

예배위원회 위원장 - 김두원 장로

예배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봉사팀이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자'는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 도착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한다. 그들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기둥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예배위원장으로 헌신하는 김두원 장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예배위원회는 어떤 봉사를 하는 곳인가요?
광림교회 예배위원회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담당하는 부서로, 강대상의 청결부터 비품 정리, 성도들의 안전 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입례부터 퇴장까지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합니다.

2. 예배위원회 봉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자'는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봉사자들이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위원회는 교회의 얼굴과 같은 존재이므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봉사자들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3. 예배위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은혜로운 순간, 또는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매주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근감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악수를 하지 않던 성도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죠.
또한,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경건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성장도 경험하게 되며 신앙이 삶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119를 부르거나 의료선교회와 협력해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분위기가 엄숙한 만큼 위원들 스스로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 점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4. 예배위원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예배위원회는 부지런한 부서 중 하나로, 새벽 5시~6시부터 교회에 순차적으로 도착해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특히, 주보 간지를 정리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봉사하는 것이 예배위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회에 새해에는 더 많은 봉사자가 함께해 이 귀한 사역이 더욱 든든하게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배위원회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봉사 문의 : 총무 임시호 권사 (010-5445-7557)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6

아브람의 이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창 12:7~9)

아브람의 행렬은 바빌로니아 계곡으로 곧장 들어서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의 변두리를 따라 움직였다. 포악한 아시리아(Assyria)군이 그들의 행렬을 공격하여 양과 여인들을 빼앗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들은 큰 사고 없이 서아시아의 초원 지대에 모두 도착하였다.

일행들이 시겜 마을 근처에 멈추자, 아브람은 모레라 불리던 상수리나무 옆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다. 그러고는 벧엘로 장소를 옮겨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가나안은 아브람이 예상했던 것과는 무척 달랐다. 가나안의 땅은 가뭄이 들어서 양들을 키울 수가 없었다. 결국 아브람은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이집트로 향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남매로 위장했다. 이집트의 파라오(Pharaoh)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람의 이 비겁한 행동은 곧바로 들통이 나 아내를 파라오에게 맥없이 빼앗기고 말았다. 이에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저주를 내렸고,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러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질책을 하고는 아브람을 쫓아냈다.

이후에도 아브람은 그랄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아비멜렉과도 이집트 파라오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뒤늦게 사래가 자신의 이복동생이자 아내라는 것을 밝혔다.

아브람과 사래, 조카 롯은 이집트를 떠나 벧엘로 갔다. 그곳은 아브람이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벧엘 지역은 협소한 곳이었기에 아브람과 롯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자연히 양들의 목초지가 줄어들자 아브람과 롯의 양치기들은 '누가 더 좋은 초원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아브람은 롯을 불렀다. 그리고 서로 땅을 나눠서 각자 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롯은 자신의 무리를 데리고 소돔으로 떠났다.

아브람의 출전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창 14:22~23)

아브람은 헤브론 근처에 있던 마므레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무사히 인도해 준 것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는 번제를 올렸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인근 지역은 안전하지 못했고, 그중에서도 엘람 왕이 가장 위험했다. 엘람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아시리아의 통치자들에게까지 대항할 정도였다.

엘람 왕은 롯이 거주하던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가 공물 징수에 저항하자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다. 불행히도 그 전쟁은 바로 롯이 사는 장소에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엘람 왕의 병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잡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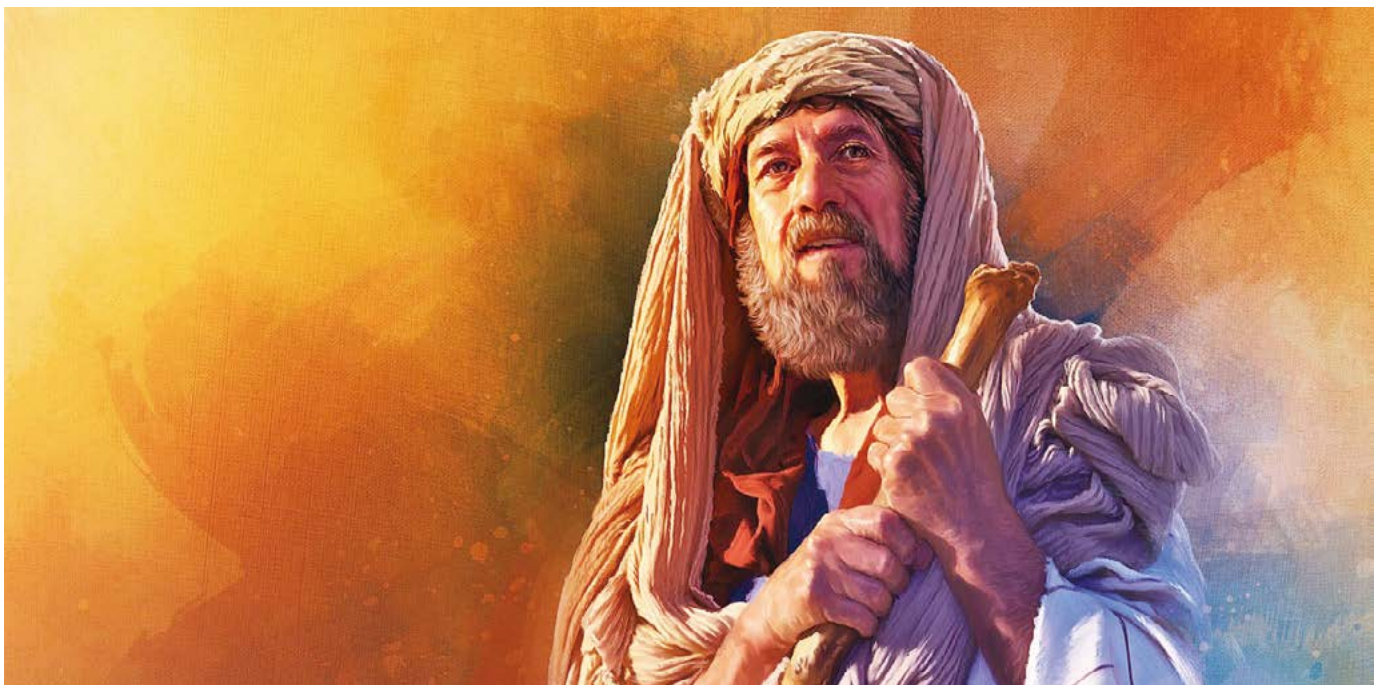
아브람은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히브리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목동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만들어 이끌고 나갔다. 한밤중에 엘람 왕의 진영에 도착한 아브람은 자고 있던 엘람왕의 군대를 공격해서 롯을 구출하여 돌아왔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왕의 골짜기'로 불리는 사웨 골짜기로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다.

▲ **아브람과 멜기세덱**_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을 영접하는 장면이다. **루벤스 작품**

아브람과 멜기세덱은 둘 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곧바로 친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교도의 우상 신을 숭배하던 소돔 왕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람은 소돔 왕이 엘람 족에서 되찾은 많은 보물을 주려 했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나머지 양을 소돔의 원래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02-2056-5771)



◀ **아브람**_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 본래 '아브람(위대한 아버지)'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뒤에 '아브라함(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새 이름을 얻는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 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